

경제발전과 복식의 서구화와의 관계연구 -한국여성복을 중심으로-

전 양 진

명지대학교 생활과학부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Westernization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An Emphasis on Korean Women's--

Jeon, Yang Jin

Division of Human Ecology, Myongji University

(1999. 5. 7 접수)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clothing westernization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The data were obtained for the Korean women's clothes and analyzed by the linear regression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western clothing style was adopted first for the street wear and then for the casual home wear. Second, the per capita GNP as a proxy of the economic development was shown to affect the westernization of Korean women's clothing significantly. The Korean traditional clothing was disappeared as the per capita income went up.

These results support previous anthropological studies on the westernization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following industrialization. Also, this quantitative study shows one way to prove Bell's hypothesis and will be of use to the economists as well as the clothing researchers.

Key words: westernization, economic development, traditional Korean clothes, simplified Korean clothes, western clothes; 서구화, 경제발전, 전통한복, 개량한복, 서구복

I. 서론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복식은 민족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하여 왔다. 이와 같이 복식형태의 차이와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각 민족

의 관습이나 법률, 생활양식, 기술적인 발달, 타문화와의 접촉 등의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식형태를 결정하며 변화시켜 왔다는 것이다(Roach & Eicher, 1973; Horn & Gurel, 1981). 20세기의 의복형태는 위의 여러 요소들 중 특히 기술적인 발달과 타문화와의 잦은 접촉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생산기술의 발달로 시작된 산업혁명은 생활양식의

현대화를 촉진시켜서 기능적인 서구식 주거환경과 서구식 음식, 서구복식 등이 세계적으로 채택되게 하였다.

사회가 산업화하면서 전통복식이 사라지는 현상을 Bell(1976)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Bell에 의하면 19세기 초에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전통복식을 착용했으나 19세기 말에는 전통복식이 일상복에서 사라지고 오직 국가적 명절이나 관광 및 여행 포스터에서만 발견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경우 19세기 초에는 고유의상인 높은 푸딩형 모자, 짧은 재킷, 무릎길이의 바지를 착용하였으나 산업화가 진행된 후인 19세기말에는 이들 복식이 완전히 일상복에서 사라졌다. 영국은 서구산업혁명의 선구자로서 제일 먼저 그들의 전통복식을 일상복에서 포기하였고, 이어 독일, 벨기에, 덴마크 등이 민속복식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경제적으로 뒤져있던 그리스, 러시아, 이란, 스페인 등은 민속복식을 계속 착용하였다(이은영, 1996). 즉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들에 비하여 그들의 전통복식을 먼저 일상복에서 포기한다는 것이다.

20세기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의 복식이 전통복식에서 서구식 제복으로 바뀌었다. 유럽국가들에 비해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산업화가 늦고 경제적으로 뒤져 있었으므로 전통복식의 폐기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늦었다. 경제적으로 앞서 있던 미국 및 유럽국가들로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원조물자에 중고 의류들이 포함되어 세계적으로 전달됨에 따라, 이는 저개발국가들의 서구복식 채택을 가속시켰다(Roach & Eicher, 1973).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산업화된 일본의 경우 19세기 말부터 서구복이 착용되기 시작하여 1930년 무렵에는 간편복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일상복이 서구복으로 대체되었다고 한다(Roach & Eicher, 1965). Galletti, R. et. al.(1956)에 의한 나이지리아 농부들의 복식연구, 미국에 합병된 이래 알래스카 인디언의 복식 변화에 관한 Hughes(1960)의 연구, Gillin(1951)의 중남미 과테말라 인디언 복식의 서구화에 관한 연구들은 서구문화와의 접촉 및 소득증가가 복식의 서구화를 초래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서구복식은 갑오경장을 전후하여 소개되었으나 이것이 일상복으로 보편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일본의 식민지 기간(1910~1945년) 동안 공무원이나 학생의 제복, 일반인의 작업복으로 강요되었던 서구복 착용은 1945년 해방을 맞으면서 민족주의 경향과 유교주의 사상에 힘입어 잠시 전통복식인 한복착용으로 복귀하기도 했다(김민자 외, 1993; 유수경, 1991). 그러나 도시에 거주하는 직장남성들은 서구문물과 계속 접하면서 서구식 양복을 많이 채택하였다. 이에 비해 여성들의 복식은 1950년대에도 대부분이 한복이었으며 서구식 양장차림은 경제발전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에야 많아졌다(최경자, 1981). 즉 남성들의 복식은 경제발전이 시작되기 이전 새로운 문화와의 접촉으로 인해 이미 서구화되었으며, 여성들의 의복은 경제발전과 함께 서구화된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제발전 정도는 남성복보다 여성복의 변화에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여성복식의 서구화 과정과의 관계를 수량적으로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의복 용도별로 착용된 의복형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고 둘째, 경제발전의 정도가 우리 나라 성인여성들의 의복형태의 변화, 즉 전통복식에서 서구복식으로 전환되어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기간은 한국의 경제발전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1960년을 전후한, 1954년부터 1974년까지이며 연구자료는 문헌연구방법에 의해 수집되었다. 본 연구는 계량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복식현상을 설명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는 경제학자나 의류학자들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에서 학제적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II. 연구방법

한국 여성복의 서구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이 조사되었다. 먼저 의복용도는 외

출복과 평상복으로 나누고, 착용된 의복형태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조사되었다. 또한 각 의복형태의 빈도가 의복용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경제발전의 정도가 우리 나라 성인여성들의 의복형태의 변화, 즉 전통복식에서 서구복식으로 전환되어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지가 조사되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첫째, 경제발전이 한복과 서구복으로 구성된 전체 착용의복 중 한복의 착용비율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조사되었다. 둘째, 경제발전이 전통한복과 개량한복으로 구성된 전체 한복 중 전통한복의 비율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조사되었다. 경제발전 정도는 보통 총국민소득(GNP)이나 일인당 국민소득(Per capita GNP)으로 표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인당 국민소득을 그 대리지표로 삼았다.

여성의 의복형태는 크게 현대적 서구복식인 양장과 전통복식인 한복으로 구분하였으며 한복은 다시 전통한복과 개량한복으로 분류하였다. 전통한복은 전형적인 한복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저고리 고름이 있으며 치마의 길이가 발목까지 오는 형태이며 개량한복은 저고리의 고름 대신 브로우치나 단추가 사용되거나 치마길이가 무릎 아래까지 짧아진 형태, 또는 치마 여밈이 없는 통치마의 형태를 가진 한복을 말한다. 또한 착용된 의복은 용도에 따라 출퇴근과 모임을 위한 외출복과, 가사일과 휴식을 위한 평상복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신문의 사진자료에서 외출복은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착용된 의복사진을 말하며 평상복은 집안을 배경으로 촬영된 사진의 의복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기간은 한국의 경제발전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1960년을 전후한, 1954년부터 1974년까지이며 연구자료는 문헌연구 중의 한 방법인 내용분석에 의해 수집되었다. 여기서는 전국 일간지 중의 하나인 조선일보를 편의로 선택하여 1954년부터 1974년까지 매월 10일부터 27일까지 게재된 사진자료들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에서는 일반인들의 사진만 대상으로 하였고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의 유명인사 사진이나 새로운 의상 소개를 위한 사진들은 제외시켰다. 이는 본 연구목적이 일반 여성들의 일상복이 서구화되는 과정을 조사하는데 있는 만큼, 유명

인의 의상이나 패션쇼 등의 사진들은 일반인들의 의복스타일과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신문에 게재된 사진들 중 의복형태의 구분이 명확한 것들만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들은 다음의 두 연구모델에 사용되었다:

$$CLO_{it} = a_0 + a_1 PGNP_t + e_{it} \quad \text{모델 I)}$$

$$CLO_{2t} = b_0 + b_1 PGNP_t + e_{2t} \quad \text{모델 II)}$$

where

CLO_{it} = 착용된 전체의복 중 한복의 비율(%),

CLO_{2t} = 착용된 전체한복 중 전통한복의 비율(%),

$PGNP_t$ = 일인당 국민소득(경상가격; 달러),

a_0, a_1, b_0, b_1 = 변수,

e_{it}, e_{2t} = 오차,

t = 연도 (1954년부터 1974년)

위의 각 모델은 선형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에 의해 추정되었다.

III. 결과 및 논의

1. 의복 용도별 복식 형태의 변천

1954년부터 1974년까지 조선일보의 게재된 사진자료들을 토대로 여성복식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사용된 사진자료들은 여성복을 용도에 따라 외출복과 평상복으로 나누고, 각 용도별로 착용된 의복형태를 전통한복과 개량한복 그리고 양장이라는 현대적 서구복으로 분류한 것이다. <표 1>에 의하면 관찰된 총의복 빈도는 매년 일정하지 않았으나 1954년의 자료수가 27개인 경우를 제외하면 매년 50개 이상의 자료사진이 선택되었다. 전 기간에 걸쳐 관찰된 의복은 외출복이 평상복보다 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공식적인 모임이나 행사, 놀이광경 등을 다루는 내용에 관한 사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1956년의 경우 외출복은 70개나 관찰되었는데 비해 평상복은 어느 복식형태로도 발견되지 않았다.

외출복의 의복형태 변천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졌다. 먼저 1954년부터 1960년까지는 1954년과

1957년을 제외하면 개량한복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때는 2차대전과 6·25전쟁 직후여서 경제적인 발전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진출도 미미했던 시기로, 서구복이 본격적으로 채택되지 못했으나 전통한복보다는 간소한 형태의 개량한복이 많이 착용되었다. 그러나 1961년부터 1968년 동안에는 서구식 양장이 외출복으로 가장 많이 착용되었고 1962년을 제외하면 전통한복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경제적인 발전이 시작됨과 함께 직업을 가진 젊은 여성인구가 점차 증가했고 이들 젊은 여성들이 양장을 많이 착용했기 때문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사진 자료에 의하면 중년 및 노년의 여성들은 외출시 전통한복을 많이 착용했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시기동안 개량한복이 외출복으로 사용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한편 1969년부터 1974년까지의 외출복으로는 양장 다음으로 개량한복이 많이 착용되어 이전 시기와 대조를 이룬다. 이 기간에는 기능성과 간편함을 추구한 서구식 생활양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서구식 양장착용의 빈도가 늘어났으며 디자인이 단순하고 활동에 편한 개량한복이 여성들의 외출복으로 많이 채택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평상복의 경우는 의복형태의 특징상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955년부터 1964년까지는 개량한복이 평상복으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그 다음으로 서구식 양장형태가 많았다. 이에 비해 1966년부터 1974년까지는 양장차림이 평상복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개량한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가정에서 쉴 때나 집안 일 등의 작업을 할 때도 개량한복보다 더 기능적인 양장형태가 많이 착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전통한복은 모

〈표 1〉 한국여성의 의복용도별 복식형태의 변천

(단위: 개)

용도	외출복			평상복		
	의복형태			의복형태		
년도	전통한복	개량한복	서구복	전통한복	개량한복	서구복
1954	9	4	8	2	2	2
1955	15	28	15	0	14	2
1956	29	28	13	0	0	0
1957	45	13	25	1	2	0
1958	27	41	31	1	4	1
1959	20	38	29	1	16	3
1960	18	52	16	5	14	5
1961	21	11	25	2	28	6
1962	11	18	28	1	8	7
1963	26	10	30	1	12	6
1964	16	5	34	3	14	6
1965	22	2	25	4	3	2
1966	21	7	28	0	4	5
1967	16	4	26	2	6	8
1968	10	1	24	1	4	12
1969	5	19	31	0	2	3
1970	8	17	32	0	2	12
1971	2	10	38	0	5	17
1972	2	6	39	1	6	12
1973	3	2	39	0	3	15
1974	3	5	25	0	4	14

자료: 조선일보(1954~1974), 매월 10~27일

든 기간 동안 평상복으로는 가장 적게 착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한복의 착용시 불편함(예: 고름 여밈의 불안정, 짧은 저고리 길이, 치마단 여밈의 불안정, 가슴을 압박하는 치마말기)과 세탁·관리의 복잡함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1]과 [그림 2]는 1954년부터 1974년까지 각 용도별 의복형태의 빈도를 나타내 주는 그래프로 이는 <표 1>의 내용을 더 알기 쉽게 보여준다.

[그림 1]과 [그림 2]에 의하면 전통한복은 1968년까지 외출복으로 많이 입혀졌고, 평상복으로는 모든 시기에 걸쳐 아주 적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 비해 개량한복은 1960년까지는 외출복으로 많이 착용되었으나 그 이후 사용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평상복으로는 1964년까지 가장 많이 입혀졌다. 한편 서구복은 1961년 이후 외출복으로는 다른 의복형태보다 많이 입혀졌으며 1966년부터는 평상복으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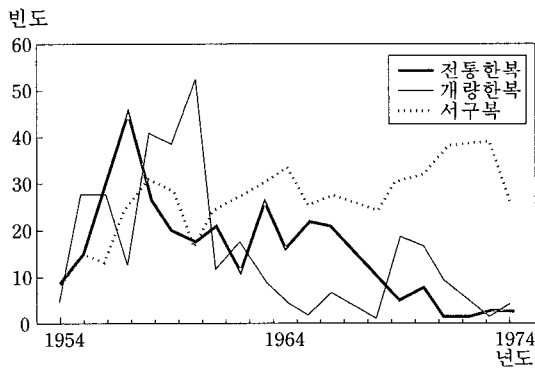
사용빈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복식의 서구화가 외출복으로 시작하여 점차 평상복으로 확산됨을 보여준다. 전 조사기간을 통하여 의복 용도별로 착용된 의복형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1954~1974년 동안 한국 여성복식의 형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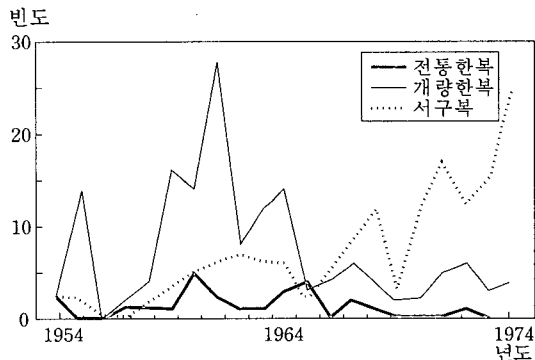
용도별 빈도		(단위 : 개(%))	
용도 형태	외출복 N(%)	평상복 N(%)	합계
전통한복	329(27)	25(7)	354
개량한복	321(26.5)	154(49)	475
서구복	561(46)	138(44)	699
합계	1211(100)	317(100)	1528

***: 0.001 수준에서 유의

자료: 조선일보 (1954~1974), 매월 10~27일



[그림 1] 한국 여성의 외출복 형태의 변천(1954~1974)



[그림 2] 한국 여성의 평상복 형태의 변천(1954~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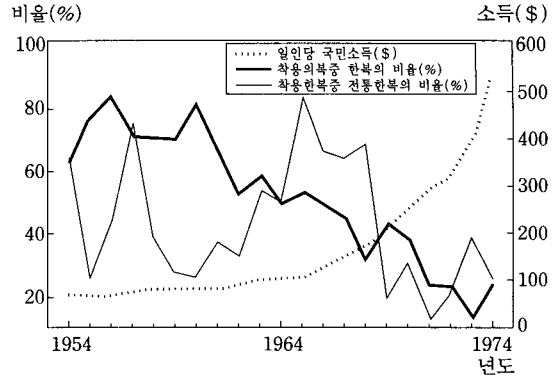
<표 2>에 따르면 1954년부터 20년 동안 외출복과 평상복으로 착용된 의복은 각각 1211개와 317개로 나타났다. 외출복으로는 서구복 형태가 가장 많아 전체 외출복의 46% (561개) 정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전통한복과 개량한복이 비슷한 비율로 각각 27%, 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상복에 있어서는 개량한복이 가장 많아, 154개로 전체의 49%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서구복인 양장이 44%(138개)이며 전통한복은 25개로 전체 평상복의 8%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용도별 의복형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χ^2 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 값이 79.4로 이는 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54~74년 동안 한국 여성은 외출복으로는 서구식 양장을 많이 착용하였고, 평상복으로는 개량한복을 주로 입었으며 전통한복이 평상복으로 입혀진 빈도는 매우 적었다. 이와 같이 외출복에서 서구복이 채택된 이후에도 평상복으로는 고유복식이 계속 착용된다는 사실은 일본에 관한 Nakagawa & Rosvsky(1963)의 연구와 과테말라 인디언 여성복에 관한 Gillin(195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 경제발전과 여성 복식의 서구화 경향

경제발전 정도가 의복 형태의 서구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연도별로 경제발전의 지표가 되는 일인당 국민소득과 전체의복 중 한복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또한 경제발전 정도가 한복형태의 간소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한복에 대한 전통한복의 비율변화도 조사되었다. <표 3>은 각 연도별로 일인당 국민소득과 전체 착용의복 중 한복(전통한복+개량한복)의 비율, 전체 착용한복 중 전통한복의 비율을 나타낸다.

<표 3>에 의하면, 일인당 국민소득은 모든 조사 기간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1954~1965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65년 이후부터는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착용의복 중 한복의 비율은 1954~1956년 동안은 점차 증가하여 1960년까지는 80% 이상을 나타내나, 1961년부터는 1965년과 1969년, 1974년의 일시적인 증가를 제외하면 계속



[그림 3] 한국의 국민소득과 여성복식 형태의 변천곡선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전체 한복 중 전통한복의 비율은 1954년의 65%에서 1974년의 25%로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일시적인 감소와 증가가 불규칙적으로 반복되었다.

[그림 3]은 국민소득과 전체 의복에 대한 한복의 비율, 전체 한복에 대한 전통한복의 비율변천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표 3>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경제발전 지표가 한복착용의 감소와 전체 한복 중 전통한복의 착용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델 I과 II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모델 I과 II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괄호 안은 t 값)

	절편	PGNP 계수	adjusted R ²
모델 I	73.71*** (17.53)	-0.13*** (-6.60)	0.68
모델 II	53.60*** (7.70)	-0.10* (-1.90)	0.10

* : 0.1 수준에서 유의

*** : 0.001 수준에서 유의

<표 4>의 결과에 의하면 모델 I의 adjusted R² 값은 0.68로 이 모델의 설명력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의 종속변수인, 전체 의복에 대한 한복의 비율은 일인당 국민소득(PGNP)에 의해 0.001 수준에서 부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할수록 한복착용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여, 이는 경

<표 3> 한국의 국민소득과 여성의 복식형태의 변천

연도	일인당 국민소득(\$)	착용의복 중 한복의 비율(%)	착용한복 중 전통한복의 비율(%)
1954	70	63	65
1955	65	77	26
1956	66	84	43
1957	74	71	75
1958	80	70	38
1959	81	70	28
1960	79	81	26
1961	82	67	37
1962	87	52	32
1963	100	58	55
1964	103	49	50
1965	105	53	84
1966	125	49	66
1967	142	45	64
1968	169	31	69
1969	210	43	19
1970	252	38	30
1971	289	24	12
1972	319	23	20
1973	396	13	38
1974	542	24	25

자료: 한국은행(1994), 국민계정; 조선일보 (1954~1974), 매월 10~27일

제발전과 복식의 서구화에 관한 Bell(1976)의 주장을 통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한편 모델 II의 adjusted R² 값은 0.10밖에 안되어 이 모델의 설명력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델의 종속변수인 전체 한복 중 전통한복의 비율은 일인당 국민소득에 의해 0.10의 유의수준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한복의 착용은 감소하며 전통의상은 좀더 간소하며 기능적인 형태로 변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러나 유의수준에 관하여 볼 때, 모델 II에서 국민소득의 영향력은 모델 I의 경우보다 적다고 할 수 있다. 전통복식이 경제발전 따라 간소화되는 경향은 과테말라 인디언에 대한 Gillin(195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여성복식의 서구화 과정을 통해, 경제발전과 복식의 서구화 현상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발전의 정도가 우리 나라 성인여성들의 의복형태의 변화, 즉 전통복식에서 서구복식으로 전환되어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지가 조사되었다. 연구기간은 한국의 경제발전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1960년을 전후한, 1954년부터 1974년까지이며 연구자료는 문헌연구 방법에 의해 수집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용도별 의복형태의 변천에 있어서 외출복으로는 1960년 이전까지 고유복식인 한복이 주로 입혀졌고 1961년 이후로는 서구식 양장이 많이 착용되었다. 평상복으로 서구복식이 채택된 시기는 외출복의 경우보다 늦어져서, 1965년까지는 개량한복이 주로 입혀지다가 1966년 이후부터 서구복식이 많이 착용되었다. 이와 같이 외출복에서 서구복이 채택된 이후에도 평상복으로는 고유복식이 계속 착용된다는 결과는 일본에 관한 Nakagawa et al(1963)의 연구와 과테말라 인디언 여성복에 관한 Gillin(1951)의 연구와 일치한다.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복식의 서구화가 외출복에서 시작되어 점차 평상복으로 확산됨을 보여준다.

둘째, 경제발전 정도가 의복 형태의 서구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의복에 대한 한복착용의 비율은 일인당 국민소득(PGNP)에 의해 0.001 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할수록 한복착용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여, 이는 경제발전과 복식의 서구화에 관한 Bell(1976)의 주장을 수량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한편 전체 한복 중 전통한복의 비율은 일인당 국민소득에 의해 0.10의 유의수준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한복의 착용은 감소하며 전통의상은 좀더 간소하며 기능적인 형태로 변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통복식의 서구화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관성이 있으며 경제발전과 복식의 서구화 관계를 설명한 Bell의 주장을 통계적으로 검증해 주고 있으나,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종교적 이념이 강하지 않으므로 서구복식의 유입이 자유로웠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들이나 종교적, 전통적 이념이 강한 국가들에게는 유사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이를테면 종교적 이념이 강한 일부 이슬람 국가들은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통복식이 지속적으로 착용되며 서구복식은 제한적으로 채택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후속연구에서는 경제발전 단계 외에도 경제체제와 종교가 서로 다른,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요인이 전통복식의 현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는 비교문화적 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김민자 외(1993), "한국복식변천과 사회변천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2), 315-327
- 손경자(1993), 전통한복양식, 교문사
- 유수경(1991),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일지사
- 이은영(1996), 복식의장학, 교문사
- 최경자(1981), 패션 50년, 의상사

- 한국은행(1994), 국민계정조선일보(1954~1974), 매월 10~27일.
- Bell, Q.(1976), *On Human Finery*, London: Hogarth Press.
- Galletti, R., Baldwin, K. D. S., & Dina, I. O.(1956), *Nigerian Cocoa Farme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in Roach, M. & Eicher, J. (1965),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91-92.
- Gillin, J. P.(1951), *The Culture of Security in San Carlos*, New Orleans: Middle American Research Institute in Roach, M. & Eicher, J.(1965),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p. 174.
- Horn, M. and Gurel, L.(1981),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 Hughes C.(1960), *An Eskimo Village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in Roach, M. & Eicher, J.(1965),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308-310.
- Nakaguwa K. & Rosvsky, H.(1963), "The Case of the Dying Kimono: The Influence of Changing Fashions on the Development of the Jananese Woolen Industry," *Business History Review*, 37 in Roach, M. & Eicher, J.(1965),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311-312.
- Roach, M. & Eicher, J.(1973), *The Visual Self: Perspectives on Dress*,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Roach, M. & Eicher, J.(1965),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